8.4 정규분포와 중심극한정리

정규분포(normal distribution) 혹은 가우스 정규분포(Gaussian normal distribution)라는 분포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숫자를 확률 모형으로 모형화할 때 많이 사용한다.

정규분포는 평균 μ 와 분산 σ^2 이라는 두 모수만으로 정의되며 확률밀도함수(pdf: probability density function)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.

$$\mathcal{N}(x;\mu,\sigma^2) = \frac{1}{\sqrt{2\pi\sigma^2}} \exp\left(-\frac{(x-\mu)^2}{2\sigma^2}\right)$$
 (8.4.1)

분산의 역수를 정밀도(precision) β 라고 부르기도 한다.

$$\beta = \frac{1}{\sigma^2} \tag{8.4.2}$$

정규분포 중에서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($\mu=0,\,\sigma^2=1$) 정규분포를 **표준정규분포(standard normal distribution)**라고 한다.

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.

- $x = \mu$ 일 때 확률밀도가 최대가 된다.
- $x = \infty$ 로 다가가거나 $x = -\infty$ 로 다가갈수록 확률밀도가 작아진다.

사이파이를 사용한 정규분포의 시뮬레이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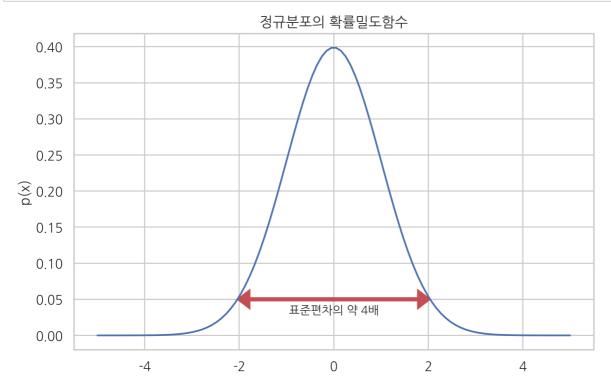
사이파이의 stats 서브패키지에 있는 norm 클래스가 정규분포 클래스다. loc 인수로 기댓값 μ 를 설정하고 scale 인수로 표준편차 $\sqrt{\sigma^2}$ 를 설정한다.

In [1]:

```
mu = 0
std = 1
rv = sp.stats.norm(mu, std)
```

pdf() 메서드를 사용하면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.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종(bell) 모양의 부드러운 단봉분포다. 종의 아랫부분이 표준편차의 4배 이상이다.

In [2]:



시뮬레이션을 통해 표본을 얻으려면 rvs() 메서드를 사용한다.

In [3]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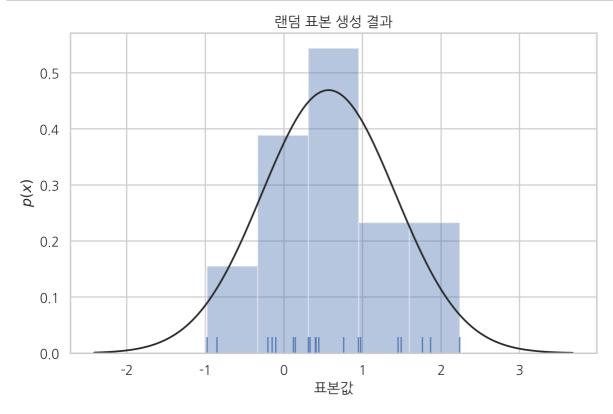
```
np.random.seed(0)
x = rv.rvs(20)
x
```

Out[3]:

시본으로 시각화한 결과다. 여기에서는 distplot() 명령의 fit 인수를 사용하여 가장 유사한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그렸다.

In [4]:

```
sns.distplot(x, rug=True, kde=False, fit=sp.stats.norm)
plt.title("랜덤 표본 생성 결과")
plt.xlabel("표본값")
plt.ylabel("$p(x)$")
plt.show(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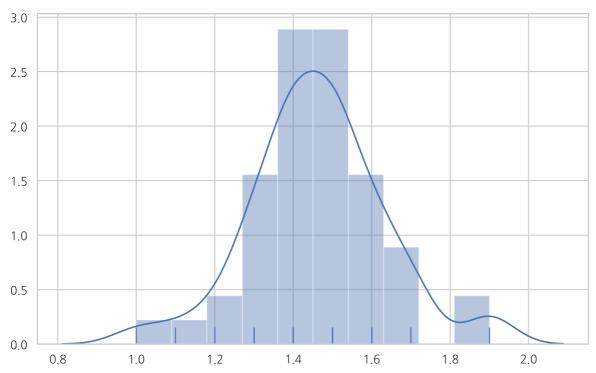


예제: 붓꽃 데이터

다음은 붓꽃 중 특정한 종(setosa)의 꽃잎의 길이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. 정규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.

In [5]:

```
from sklearn.datasets import load_iris
setosa_sepal_length = load_iris().data[:50, 2]
sns.distplot(setosa_sepal_length, rug=True)
plt.tight_layout()
plt.show()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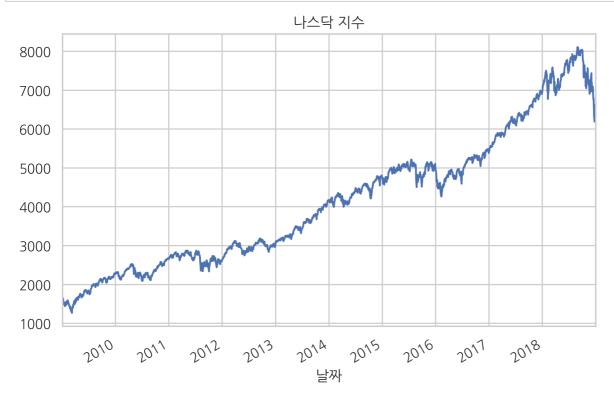
예제: 주식 수익률

다음은 과거 약 10년간의 미국 나스닥(Nasdaq) 주가지수를 그린 것이다.

In [6]:

```
import pandas_datareader.data as web

symbol = "NASDAQCOM"
data = pd.DataFrame()
data[symbol] = web.DataReader(
    symbol, data_source="fred", start="2009-01-01", end="2018-12-31")[symbol]
data = data.dropna()
data.plot(legend=False)
plt.xlabel("날짜")
plt.title("나스닥 지수")
plt.show()
```



10년간의 평균 일간수익률을 계산하면 약 0.06%가 나온다. 표준편차는 약 1.17%다. 주식의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표준편차라는 말 대신 **변동성(volatility)**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.

In [7]:

```
daily_returns = data.pct_change().dropna()
mean = daily_returns.mean().values[0]
std = daily_returns.std().values[0]
print("평균 일간수익률: {:3.2f}%".format(mean * 100))
print("평균 일간변동성: {:3.2f}%".format(std * 100)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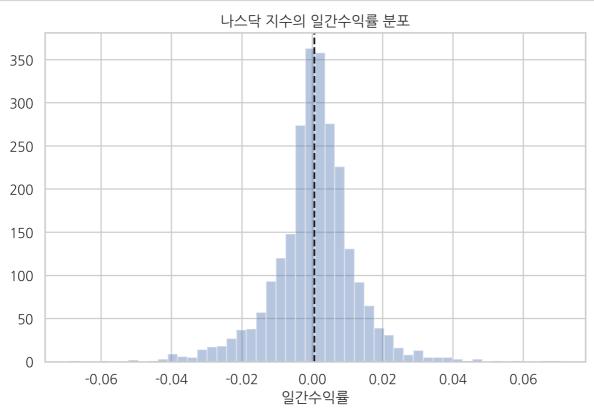
평균 일간수익률: 0.06% 평균 일간변동성: 1.17%

일간수익률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다. 이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- 1. 주식의 일간수익률은 단봉분포이고 대칭적인 정규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.
- 2. 주식 일간수익률은 0에 가까운 기댓값을 가진다.
- 3. 일간수익률의 값이 0에 가깝더라도 양수라면 오랜 시간후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.

In [8]:

```
sns.distplot(daily_returns, kde=False)
ymin, ymax = plt.ylim()
plt.vlines(x=mean, ymin=0, ymax=ymax, ls="--")
plt.ylim(0, ymax)
plt.title("나스닥 지수의 일간수익률 분포")
plt.xlabel("일간수익률")
plt.show()
```



연습 문제 8.4.1

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실수값 데이터 중 정규분포 모양을 띄는 데이터를 구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려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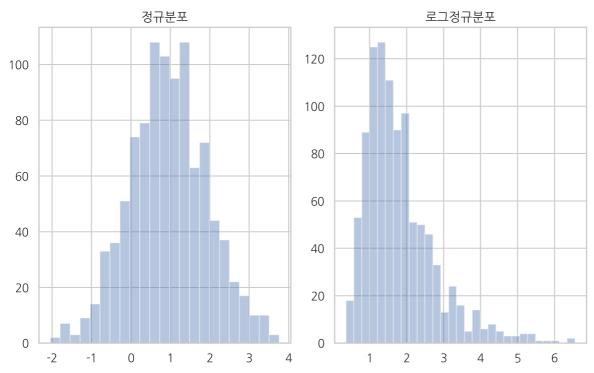
로그정규분포

주가의 수익률이 정규분포라면 주가 자체는 어떤 분포가 될까? 이 경우 주가는 **로그정규분포(log-normal distribution)**가 된다. 로그정규분포는 데이터에 로그를 한 값 또는 변화율(수익률)이 정규분포가 되는 분포를 말한다. 로그정규분포를 띄는 데이터는 항상 양수다. 따라서 로그변환한 다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In [9]:

```
np.random.seed(0)
mu = 1
rv = sp.stats.norm(loc=mu)
x1 = rv.rvs(1000)
s = 0.5
x2 = np.exp(s * x1)

fig, ax = plt.subplots(1, 2)
sns.distplot(x1, kde=False, ax=ax[0])
ax[0].set_title("정규분포")
sns.distplot(x2, kde=False, ax=ax[1])
ax[1].set_title("로그정규분포")
plt.tight_layout()
plt.show()
```



Q-Q 플롯

정규분포는 여러 연속확률분포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확률분포다. 따라서 어떤 확률변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통계적 분석 중 하나다.

Q-Q(Quantile-Quantile) 플롯은 분석할 표본 데이터의 분포와 정규분포의 분포 형태를 비교하여 표본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검사하는 간단한 시각적 도구다. Q-Q 플롯은 동일 분위수에 해당하는 정상 분포의 값과 주어진 데이터값을 한 쌍으로 만들어 그린 스캐터 플롯(scatter plot)이다. Q-Q 플롯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(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방법론을 서술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다).

1. 표본 데이터를 정렬(sort, ordering)한다.

- 2. 하나하나의 표본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중의 몇 % 정도에 해당하는지 위칫값을 구한다. 위칫값으로는 특정 순위(order)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값을 뜻하는 순서통계량(order statistics)이라는 값을 이용한다.
- 3. 각 표본 데이터의 위칫값이 정규분포의 누적확률함수(cdf) 값이 되는 표준 정규분포의 표본값을 구한다. 즉확률값에 대한 누적확률함수의 역함수 값을 구한다. 이를 표본 정규분포의 분위함수(quantile function)값이라고 한다. 예를 들어 표본 정규분포의 1%의 분위함수값은 $F^{-1}(0.01)$, 약 -2.326이다.
- 4. 정렬된 표본 데이터(ordered values)와 그에 대응하는 분위수(theoretical quantiles)를 하나의 쌍으로 간주하여 2차원 공간에 하나의 점(point)으로 그린다.
- 5. 모든 표본에 대해 2부터 4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스캐터 플롯을 완성한다.

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 표본을 Q-Q 플롯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.

In [10]:

```
x_sorted = np.sort(x)
x_sorted
```

Out[10]:

```
array([-0.97727788, -0.85409574, -0.20515826, -0.15135721, -0.10321885, 0.12167502, 0.14404357, 0.3130677, 0.33367433, 0.40015721, 0.4105985, 0.44386323, 0.76103773, 0.95008842, 0.97873798, 1.45427351, 1.49407907, 1.76405235, 1.86755799, 2.2408932])
```

In [11]:

```
from scipy.stats.morestats import _calc_uniform_order_statistic_medians

position = _calc_uniform_order_statistic_medians(len(x))
position
```

Out[11]:

```
array([0.03406367, 0.08261724, 0.13172109, 0.18082494, 0.2299288, 0.27903265, 0.32813651, 0.37724036, 0.42634422, 0.47544807, 0.52455193, 0.57365578, 0.62275964, 0.67186349, 0.72096735, 0.7700712, 0.81917506, 0.86827891, 0.91738276, 0.96593633])
```

In [12]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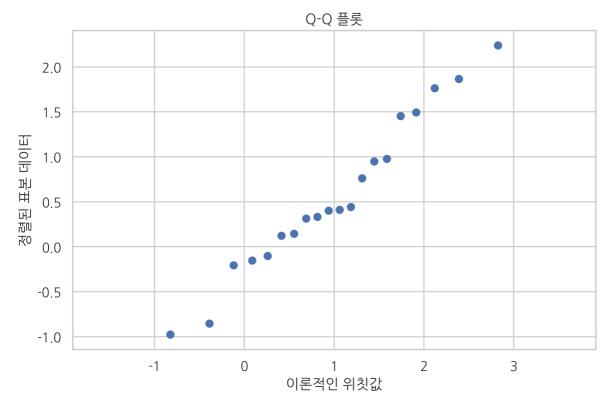
```
qf = rv.ppf(position)
qf
```

Out [12]:

```
array([-0.8241636 , -0.38768012 , -0.11829229 , 0.08777425 , 0.26091865 , 0.4142824 , 0.55493533 , 0.68726332 , 0.81431072 , 0.93841854 , 1.06158146 , 1.18568928 , 1.31273668 , 1.44506467 , 1.5857176 , 1.73908135 , 1.91222575 , 2.11829229 , 2.38768012 , 2.8241636 ])
```

In [13]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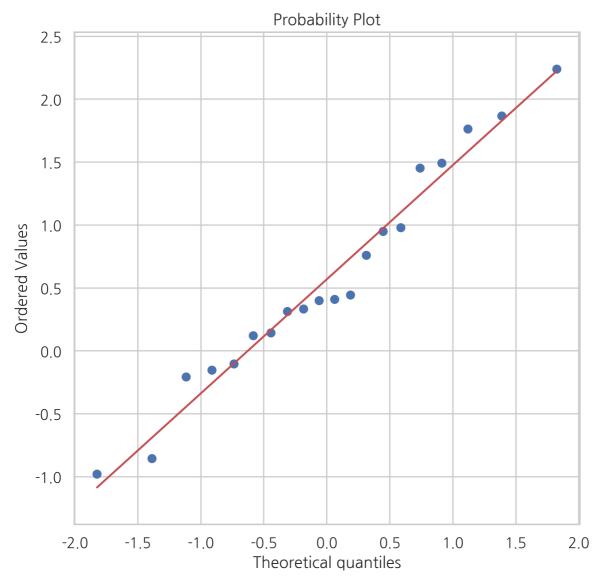
```
plt.scatter(qf, x_sorted)
plt.title("Q-Q 플롯")
plt.xlabel("이론적인 위칫값")
plt.ylabel("정렬된 표본 데이터")
plt.axis("equal")
plt.show()
```



사이파이 패키지의 stats 서브패키지는 Q-Q 플롯을 계산하고 그리기 위한 probplot() 명령을 제공한다. probplot()은 기본적으로 인수로 보낸 데이터 표본에 대한 Q-Q 플롯 정보만을 반환하고 실제 챠트는 그리지 않는다. 만약 차트를 그리고 싶다면 plot 인수에 matplotlib.pylab 모듈 객체 혹은 Axes 클래스 객체를 넘겨주어야 한다.

In [14]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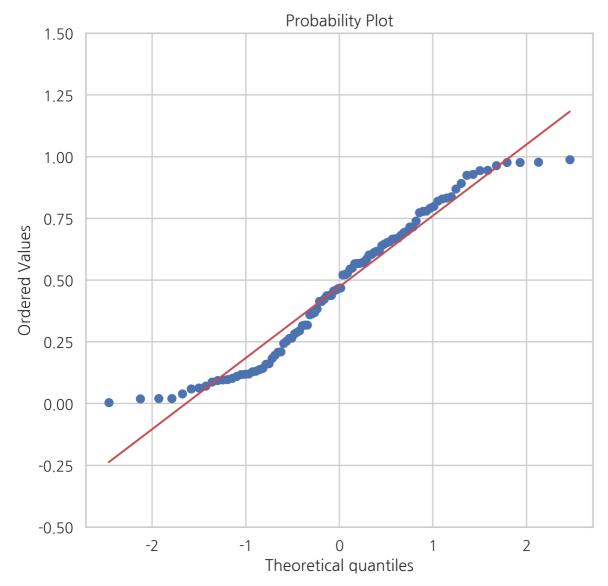
```
np.random.seed(0)
plt.figure(figsize=(7, 7))
sp.stats.probplot(x, plot=plt)
plt.axis("equal")
plt.show()
```



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 표본을 Q-Q 플롯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직선이 아닌 휘어진 형태로 나타난다. 이 코드에서는 균일분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. 이 균일분포 데이터는 0 이상 1 이하의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로축의 값이 이 구간내에 존재하게된다. 따라서 위아래로 제한된 형태의 휘어진 Q-Q 플롯이 나온다.

In [15]:

```
np.random.seed(0)
x = np.random.rand(100)
plt.figure(figsize=(7, 7))
sp.stats.probplot(x, plot=plt)
plt.ylim(-0.5, 1.5)
plt.show()
```



연습 문제 8.4.2

연습 문제 8.4.1의 데이터에 대해 Q-Q 플롯을 그려서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확인하라.

중심극한정리

실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 많은 것들이 정규분포로 모형화 가능하다.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중심극한정리 (Central Limit Theorem)다.

(주 1: 중심극한정리라는 용어는 1920년 헝가리 수학자 포여 죄르지(George Pólya)가 만들었다. 중심(central)이라는 말은 확률이론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붙였다.)

중심극한정리는 여러 확률변수의 합이 정규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현상을 말한다.중심극한정리를 수학적 인 용어로 쓰면 다음과 같다.

 X_1, X_2, \ldots, X_N 가 기댓값이 μ 이고 분산이 σ^2 으로 동일한 분포(기댓값과 분산의 값이 동일할 뿐이며 분포의 모양은 달라도 된다)이며 서로 독립인 확률변수들이라고 하자.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는 상관없다.

 X_1, X_2, \ldots, X_N 에서 뽑은 각각의 표본 데이터 x_1, x_2, \ldots, x_N 의 표본 평균

$$\bar{x}_N = \frac{1}{N}(x_1 + \dots + x_N)$$
 (8.4.3)

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확률변수다. 이 확률변수를 $ar{X}_N$ 이라고 하자.

중심극한정리는 다음과 같다.

N개의 임의의 분포로부터 얻은 표본의 평균은 N이 증가할수록 기댓값이 μ , 분산이 $\frac{\sigma^2}{N}$ 인 정규분포로 수렴한다.

$$\bar{X}_N \xrightarrow{d} \mathcal{N}\left(x; \mu, \frac{\sigma^2}{N}\right)$$
 (8.4.4)

 $\stackrel{d}{\longrightarrow}$ 기호는 표본 개수 N이 커질수록 분포의 모양이 특정한 분포에 수렴한다는 것을 뜻한다.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0. 분산이 1이 되도록 다음처럼 정규화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.

N개의 임의의 분포로부터 얻은 표본의 평균을 정규화하면 N이 증가할 수록 표준정규분포로 수렴한다.

$$\frac{\bar{X}_N - \mu}{\frac{\sigma}{\sqrt{N}}} \xrightarrow{d} \mathcal{N}(x; 0, 1) \tag{8.4.5}$$

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중심극한정리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. 다음 시뮬레이션에서는 0부터 1까지의 균일 분포(uniform distribution)의 표본을 각각 1번, 2번, 10번 생성하여 그 합의 분포를 보았다. 여기에서는 0부터 1까지의 균일 분포의 기댓값이 $\frac{1}{2}$, 분산이 $\frac{1}{12}$ 라는 사실을 이용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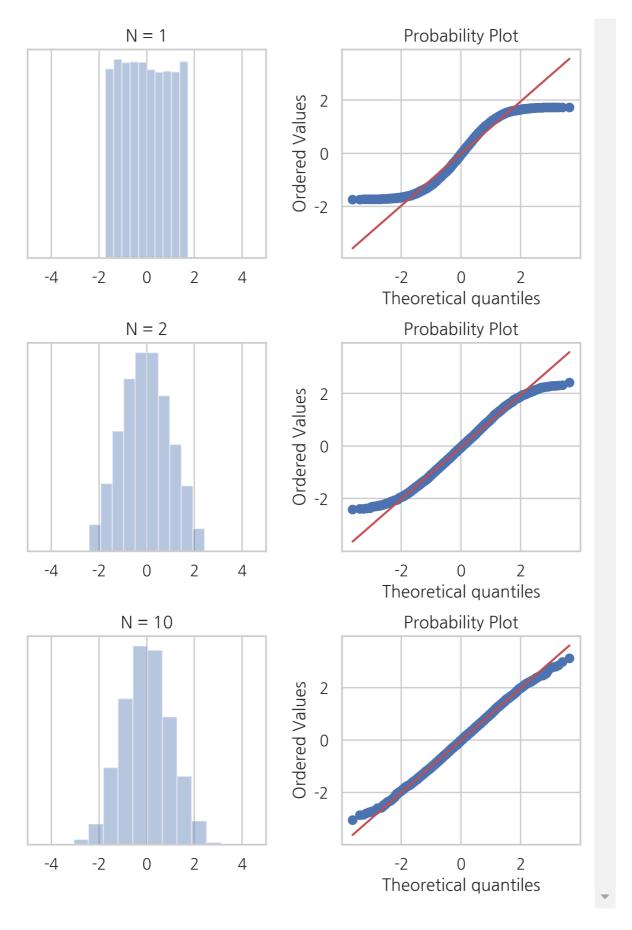
In [16]:

```
np.random.seed(0)
xx = np.linspace(-2, 2, 100)

plt.figure(figsize=(6, 9))

for i, N in enumerate([1, 2, 10]):
    X = np.random.rand(5000, N)
    Xbar = (X.mean(axis=1) - 0.5) * np.sqrt(12 * N)
    ax = plt.subplot(3, 2, 2 * i + 1)
    sns.distplot(Xbar, bins=10, kde=False, norm_hist=True)
    plt.xlim(-5, 5)
    plt.yticks([])
    ax.set_title("N = {0}".format(N))
    plt.subplot(3, 2, 2 * i + 2)
    sp.stats.probplot(Xbar, plot=plt)

plt.tight_layout()
plt.show()
```



더하는 분포의 수가 10개 정도가 되면 그 합은 정규분포에 상당히 가까워짐을 볼 수 있다.

정규분포의 통계량 분포

그렇다면 임의의 분포가 아닌 복수의 정규분포로부터 얻은 표본 데이터로 구한 표본평균은 어떤 분포를 가지게

N개의 정규분포로부터 얻은 표본의 합은 N과 상관없이 기댓값이 $N\mu$, 분산이 $N\sigma^2$ 인 정규분 포다.

$$x_i \sim \mathcal{N}(\mu, \sigma^2) \rightarrow \sum_{i=1}^N x_i \sim \mathcal{N}(N\mu, N\sigma^2)$$
 (8.4.6)

정규분포의 표본에 상수를 빼거나 곱해도 정규분포다.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기댓값이 0,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정규화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.

$$x_i \sim \mathcal{N}(\mu, \sigma^2) \rightarrow z = \frac{\bar{x} - \mu}{\frac{\sigma}{\sqrt{N}}} \sim \mathcal{N}(x; 0, 1)$$
 (8.4.7)

정규분포 표본의 평균을 정규화한 통계량을 z 통계량이라고 한다. 중심극한정리와 다른 점에 주의해야 한다. 중심극한정리에서는 표준정규분포로 점점 다가갈 뿐이고 표본 개수가 무한대가 되기 전에는 정확한 정규분포가 아니지만 z 통계량은 개수 N에 상관없이 항상 정확하게 표준정규분포이다.

연습 문제 8.4.3

정규분포로부터 나온 N개의 표본의 표본평균이 정규분포가 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과 Q-Q 플롯을 사용하여 보여라.

- (1) N = 29 W
- (2) N = 10 일 때

선형회귀모형과 정규분포

정규분포는 선형회귀모형에서 잡음(disturbance)을 모형화하는데 사용된다. 선형회귀모형은 입력변수 x_1, \ldots, x_N 이 종속변수 y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.

$$\hat{y} = w_1 x_1 + \dots + w_N x_N \approx y \tag{8.4.8}$$

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.

$$y = w_1 x_1 + \dots + w_N x_N + \epsilon \tag{8.4.9}$$

 ϵ 은 **잡음(disturbance)이라고 하며 우리가 값을 측정할 수 없는 양**을 뜻한다.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뜻하는 잔차(residual)와는 다르다. 잡음은 선형회귀모형을 만들 때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작거나 일일히 측정하기 힘들 어서 무시하는 수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. 즉 원래 y 값은 x_1,\ldots,x_N,\ldots 의 거의 무한한 개수의 입력변수의 영향을 받는다.

$$y = w_1 x_1 + \dots + w_N x_N + w_{N+1} x_{N+1} + w_{N+2} x_{N+2} + \dots$$
 (8.4.10)

하지만 이 중에서 입력변수 x_1, \ldots, x_N 만이 영향력이 크거나 측정이 쉽다면 다른 변수의 영향은 하나의 확률변수라고 합쳐서 표현할 수 있다.

$$\epsilon = w_{N+1} x_{N+1} + w_{N+2} x_{N+2} + \dots \tag{8.4.11}$$

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임의의 확률변수의 합은 정규분포와 비슷한 형태가 된다. 또한 ϵ 의 기댓값이 0이 아니라면 다음처럼 상수항 $w_0=\mathrm{E}[\epsilon]$ 을 추가하는 대신 ϵ 의 기댓값이 0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

$$y = w_0 + w_1 x_1 + \dots + w_N x_N + \epsilon \tag{8.4.12}$$

잡음 ϵ 이 기댓값이 0인 정규분포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.

$$\epsilon \sim \mathcal{N}(0, \sigma^2)$$
 (8.4.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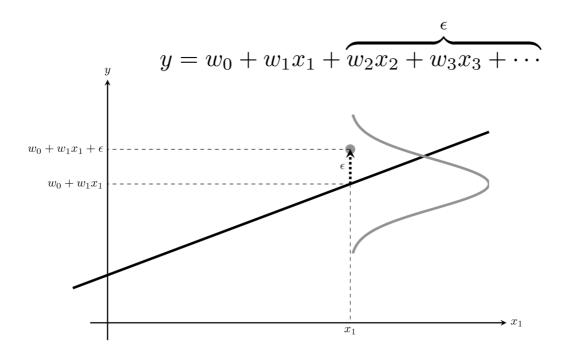


그림 8.4.1 : 선형회귀모형과 정규분포